

**보도일시**

2021. 11. 23.(화) 15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생산 부서: 징세법무국 세정홍보과	담당 과장	오규용 과 장	044) 204-3161
배포 일자: 2021년 11월 23일	담 당 자	박광석 사무관	044) 204-3182

## 국세청장과 함께하는 『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』 운영 - 추풍령을 물들인 우리들의 세금이야기 -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2021. 11. 23.(화)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에 소재한 추풍령초등학교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을 실시하였습니다.
- 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은 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·산간지역 학생들을 위해 세금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각 지방청과 함께 매월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추풍령 초등학교 재학생 26명(3~6학년)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습니다.
-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,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고 재미있는 행사(세금퀴즈, 궁금해요 청장님!)를 직접 진행하였으며,
- 이날 참여한 학생들에게 “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가꿔나가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”라고 부탁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 운영을 통하여 미래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**I****추진 배경**

-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청소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2021. 11. 23.(화) 김대지 청장이 추풍령초등학교(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소재)를 직접 방문하여 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을 운영하였습니다.
- 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은 국립조세박물관(세종시 소재)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·산간지역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세금교육과 체험학습\*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
  - \* 현금영수증카드 발급, 조세유물 체험, 세금작품공모전 수상작 감상 등
- '21년 9월부터 분기별 1회 실시하던 방식에서 각 지방청과 함께 매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.

**II****행사내용**

- 이날 행사는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 추풍령 초등학교 재학생 26명(3~6학년)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였습니다.
- 국세청 영상공모전 수상작 감상, 세금의 의미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는 세금교육, 수세패·호패 등 조세유물 및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.

구분	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 세부내용
영상 감상	· 국세청 영상공모전 수상작(5개 작품)
세금 교육	· 세금의 기원 및 세금의 역사 ·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, 올바른 세금납부
참여 행사	· 세금교육 퀴즈 · 궁금해요 청장님!(묻고 답하기)
체험 활동	·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·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(체험지와 체험도장 활용) · 조세유물 체험(수세패, 호패, 조세관련 고문헌 등)

- 특히, 김대지 국세청장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금교육과 ‘세금퀴즈’, ‘궁금해요 청장님!’을 직접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
  - “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가꿔나가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”고 격려하면서
  - 아울러 “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을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하였습니다.
- 이외에도 국립조세박물관에 전시 중인 조세유물 사진과 국세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세금작품공모전\* 입상작을 함께 전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
  - \* 청소년의 올바른 납세의식 정립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글짓기, 포스터, 만화 등 공모를 통해 국세청장상 72점 선정
- 앞으로도 국세청은 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 운영을 통하여 미래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**【국세청장과 함께하는 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 운영】**

◆ 일시·장소: '21. 11. 23.(화) 오후 1시, 추풍령초등학교

**참고**

**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 전시 유물**

유물명	사 진	내 용
농경문 청동기		<p>기원전 3~4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, 머리에 새 깃 장식을 단 사람이 농기구를 이용해 밭을 일구는 모습과 향아리에 곡식을 담은 모습이 새겨져 있음</p>
양안		<p>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전국의 토지를 측량한 토지대장으로 소재지, 지번, 지형, 등급, 면적, 소유주 등이 기록되어 있고 20년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</p>
호패		<p>16세 이상 역(役)의 의무가 있는 남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며, 소지자의 신분에 따라 재료와 기재사항이 달랐음</p>
도량형		<p>조선시대 길이(도), 부피(량), 무게(형)를 측량하는데 사용했던 도구</p>
상평통보		<p>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제작되었고 당일전·당이전·당오전·당백전으로 구분되며 뒷면에는 주조한 관청명이 표시되어 있음</p>
수세패		<p>조선시대 평시서에서 발급한 것으로 세금을 거두는 관원을 증명하는 패</p>
세무조사 요원가방		<p>1960 ~ 70년대에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시 가지고 다니던 가방으로 견금여석(見金如石)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음</p>

[국세청장과 함께하는 「찾아가는 조세박물관」 활동 사진]

